

9장 가상실효적 포섭

(1교시)

가상실효적 포섭과 가치법칙의 위기 I

▲ 「직접적 생산과정의 제 결과」

버추얼의 특징과 포섭

- 버추얼(가상실효)의 특징 :

잠복성과 드러나지 않음

버추얼의 성격을 포섭의 문제와 연결하여 우리 시대 '지배'의 중요한 특징을 살펴본다.

맑스는 「직접적 생산과정의 제 결과」라는 논문에서 **포섭론**을 전개.

내용

형식적 포섭과 실제적 포섭 사이의 관계와 형식적 포섭이 실제적 포섭으로 어떻게 이행하는가를 자세히 다루고 있음. 형식적 포섭은 자본주의 형성기에 대한 분석임.

‘형성기’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자본주의는 시장과 민족국가와 결부된다는 점에서는 17, 18C라고 보아야 하지만, 자본주의를 국가와 굳이 결부시키지 않고, **시장이라는 일상성에서의 교환관계의 발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14C를 자본주의의 형성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자본주의 형성기를 생산의 과정에서 분석을 시도

이에 앞서 교환관계의 발생과 생산관계의 발생 중에서 어느 것이 자본주의의 형성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

맑스는 **주로 생산관계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이를 통해 계급관계 형성과 혁명의 토대 형성을 보다 잘 볼 수 있게 만들었다.

▲형식적 포섭의 특징

- 형식적이란 말은 전 자본주의적인 사물들(생산도구, 생산자, 노동대상)을 형태에서만 자본주의적 형태를 부여함. 공동의 공간에서 생산하여 시장에 내다 판다는 점에서만 그 나름의 독특성이 나타남.

- 수공업manufacture 단계에서 자본가는 화폐 소유자에 불과함.

생산과정의 통제권은 오히려 생산자가 더욱 많이 갖고 있었다.

자본가에 비해 전문 생산자의 힘이 우월한 상황만 보더라도 이 단계의 **포섭의 방식은 형식적인 것에 머물렀다.**

- 자본가가 생산자를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화폐의 소유 힘**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음.

화폐의 힘은 주로 **노동시간에 적용**되어 생산자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으나,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투쟁을 감행한다. → 이로 인해 노동시간을 늘이기 위한 자본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됨. → 결국 자본가들은 기계라는 것을 통해 포섭을 확대시키 고자 함.

(2교시)

▲ 기계의 도입과 실제적 포섭

- 애초에 기계는 초보적인 생산도구에 불과했음.

과학기술이 전제되어야 했던 기술은 과학자의 성과가 물화되어지면서 기계의 발달로 이루어지고, 대량생산이 가능해 짐. 공장의 기계화가 이루어짐.

- 공장의 기계 도입이 자본가에게 주는 이점은 무엇인가?

필요노동시간의 커트라인을 줄여줌.

→ 필요노동시간이 긴 가운데 잉여노동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됨.

이와 달리 필요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잉여노동시간의 착취를 별다른 불만 없이 늘일 수 있음.

생필품이 필요노동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압도적인 요소가 됨. 생필품 생산에 필요노동을 줄이면 된다. -> 생필품의 가격을 하락시킴 -> 단위시간당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이 도입됨.

즉, 상대적 잉여가치의 확대가 중심 문제가 됨.(도식을 참조할 것)

(1)의 a를 늘이는 것에서 (2)의 b를 늘이는 것이 목적이 되기 시작함.

(1) 절대적 잉여가치

|| ————— | ————— | ---+ a --- ||

(2) 상대적 잉여가치

|| ——— | ---+ b --- | ————— ||

→ 결국 기계는 실제적 포섭단계의 주요 역할을 담당.

맑스는 바로 이 실제적 포섭 단계에서 벌어지는 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 자본주의다운 자본주의라고 평가.

- 실제적 포섭의 단계에서는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 자본주의 생산의 주요목표가 됨.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 자본주의다운 자본주의라고 맑스는 평가했음. 노동자 역시 기계를 다룰 수 있도록 훈련된 집단으로 거듭나게 됨.

원료도 순수한 자연 상태의 형태를 벗어나서 공장에서 생산된 형태의 모습을 가지게 됨.
ex> 철강 (철강은 제련소의 제련과정을 거쳐야만 나올 수 있는 생산원료임.)

- 절대적 잉여가치의 축적과 상대적 잉여가치의 축적이 단순도치의 과정은 아님.

- 상대적 잉여가치의 축적이 주요 목표가 되는 시점에서도 절대적 잉여가치의 축적은 기본 지층으로 남아있게 됨.

동구에서 기계가 도입되었으면 노동시간이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음.

서구에서는 절대적 노동시간의 단축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음.

대신, 제3세계의 농업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함으로써 절대적 잉여가치를 확대하는 일이 서구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음. 이러한 제국주의적 사례는 20세기 동안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었음.

형식적 포섭과 **실제적 포섭**이 전 세계로 확장되었음.

→ 이제까지의 내용이 「**직접적 생산과정의 제 결과**」라는 논문의 주요 골자임.